

■ 트럼프 2기 집권 동안 석유·가스 생산 및 재생에너지 발전이 모두 증가할 전망

○ Reuters 통신이 트럼프 2기 집권이 미국 내 에너지 및 기후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이 증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¹⁾

– **(석유·가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동안 특히 원유와 가스를 비롯한 미국산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했음.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더욱 증대되었음.
- 트럼프 집권 1기 전·후에도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량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정치 성향보다 기술 개발, 시장 상황, 기업의 경영방침이 에너지 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트럼프 1기 정부는 수출 허가 일원화 및 미국산 에너지 수출 촉진 등을 통해 미국의 석유·가스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함.
- 특히 미국의 LNG 수출은 2016년 200Bcf에서 트럼프 집권 1년차에 700Bcf 이상으로 급증하였고, 2018년에는 1Tcf, 2019년 1.8Tcf, 그리고 2020년 2.4Tcf로 더욱 증대되었음.

※ LNG 프로젝트는 개발에서 수출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긴 리드타임 특성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원유 수출 역시 2016년에 60만b/d에서 2017년에 110만b/d, 2018년 200만b/d, 2019년 300만b/d, 2020년 320만b/d로 크게 증가함.
-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환경 친화적인 바이든 대통령 집권 하에서도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은 증가해 온 점을 볼 때,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생에너지)** 미국의 전원믹스는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세액공제와 기타 인센티브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주도할 수 있음.

- 그러나 전력 프로젝트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전원믹스는 여러 정부에 걸쳐 변화되며, 대통령의 정책보다 전력기업의 투자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바이든 정부 하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미국 전력산업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것임.
- 기후 옹호자들은 화석연료를 지지하고 청정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거부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미국 내 청정에너지 보급을 중단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트럼프 집권 1기 동안에도 미국의 청정에너지 발전량은 7% 증가, 화석연료 발전량은 4% 감소했으며,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2% 감소하였음.
- 따라서 석유·가스를 지원하는 트럼프 당선인조차 청정에너지 보급 추진력을 약화시키기는

1) Reuters, 2024.11.22.

어려울 것임.

-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취임 후 수일 내에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²⁾
 -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패키지에는 신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승인과 국공유지 및 해역에서 석유 시추 확대가 포함되며,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기후정책인 전기차 세액공제 및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기를 위한 발전소의 배출량 제한규정 폐기도 예정되어 있음.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 초에 단행한 신규 LNG 수출허가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현재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인수팀 관계자는 밝혔다.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5개년 시추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여 국공유지에서 시추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중단시킨 Keystone XL 파이프라인 공사도 허가할 방침임.
 - 그러나 해당 송유관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권이 이미 토지 소유주에게 반환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임.
 -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의회에 전략비축유(SPR) 보충을 위한 신규 자금도 요청할 것이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미국 내 원유 생산을 촉진시킬 것임.
 - 추가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그간 공화당은 IEA가 배출량 감축 정책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해 왔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고문은 IEA가 더욱 석유 친화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 IEA에 대한 자금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2) Reuters, 2024.11.25.